

##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송지호<sup>1)</sup> · 김순애<sup>2)</sup> · 문영수<sup>3)</sup> · 박영주<sup>4)</sup> · 백승남<sup>5)</sup> · 변수자<sup>6)</sup>  
이남희<sup>7)</sup> · 조결자<sup>8)</sup> · 조희숙<sup>9)</sup> · 최미혜<sup>10)</sup> · 최양자<sup>11)</sup>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장기의 영유아에 있어서 영양은 매우 중요하며 모유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이상적인 수유 방법으로 모아의 건강에 독특한 생물학적,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HO에서는 1979년 모유수유 권장, 적기에 적절한 보충식이 제공, 영유아 영양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활동 강화, 모성 건강의 향상 및 모유 대체 식품 및 보충 식품의 정당한 판매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모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점차 인공수유가 감소하면서 모유수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약 94%, 1982년에는 83%, 1985년에는

59%로 오히려 모유수유는 감소하고 인공수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혜경, 1983).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으로 최순옥(1987)은 국내의 신행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서 인공 영양법의 개발에 따라 수유가 간편해 졌으며, 모성의 모유 수유에 대한 자신감 결여 및 성의 부족, 인공 영양이 시대적 유행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인공 영양을 권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과잉 광고의 결과로 마치 조제유가 모유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쉽게 인공유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인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가 결여됨 및 모성의 사회 진출의 두드러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이외에도 여러 연구 문헌에 의하면 모유수유 실천에는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Brown, Lieberman, Winston 과 Plesheffe(1960)는 인공 수유를 선택한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게 된 이유로 정서적

---

1)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2) 서울간호전문대학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5) 경희간호전문대학  
6)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7) 서울간호전문대학  
8)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9) 경희간호전문대학  
1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1)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요인, 실제적 요인 및 신체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불안이 모유에 영향해서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아기가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했는지 판단할 수 없고 모유 수유를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유방을 노출하고 있는 동안의 당혹감 등을 제시했다. 실제적 요인으로는 편리함, 억매임으로부터의 자유, 남편이나 다른 사람과 수유 책임감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신체적 요인으로는 모유 수유로 인한 유방 종창(breast abscesses)으로 인한 암 발생의 두려움, 체형의 변화, 의복으로 모유가 누수됨으로 인한 불결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유 수유를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 계획 기간보다 모유 수유를 실행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Starling, Fergusson, Horwood 과 Taylor(1979)는 산모의 81%에서 모유를 계획하였으며 계획한 기간은 대개 6개월이었으나 계획한 기간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가 52%였고 이들 중 75% 이상에서 3개월 이내에 중단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정귀영과 이근(1983)은 산모의 90%에서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계획 하였으나 이 중 약 61.1%에서 5개월 이내에 중단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모유 수유 조기 중단 원인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가 '젖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젖이 부족해서 모유를 조기 중단하는 층은 주로 도시층, 부유층, 교육 수준이 높은 층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젖이 모자란다는 자체가 순수한 모성의 질병이나 심한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산모의 주관적 판단, 적극적인 의지력 부족 및 지식의 결여, 보충식이의 조기 시작 등의 원인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임신 중반기 이후부터 산전관리와 분만 직후의 모유 수유 격려로 촉진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Macaulay, Hansusaik 와 Beauvais(1989)는 임신 기간중에 일찍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예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사정과 모유 수유 과정에 대한 신념은 모유 수유 결정에 시발점이 됨을 강조 하였다. 특히 Frantz 와 Kalman(1979)은 제왕 절개 등과 같은 수술 분만으로 모유 수유 계획의 취소의 위기에 처한 산모에게 모유 수유를 하도록 도왔던 과정을 사례로 들어 소개하면서 분만후 2시간 이후부터 이른 초기 모유 수유의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역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유 수유 실천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모유 수유 실천을 위한 모유 수유 간호 전략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문제

- 가.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 나.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실천정도는 어떠한가?
- 다.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용어 정의

인식 : 모유수유에 대하여 영유아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지식 및 태도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의 점수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낸다.

실천 : 영유아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어떻게 실천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모유 양을 증가시키고 모유 수유를 계속하고자 하는 노력 및 유방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의 점수로 실천의 정도를 나타낸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면서 모유 수유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를 표적 모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하여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상자 255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가. 현재 아기의 연령이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영

유아를 가진 어머니로써  
 나. 1개월 이상 모유 수유의 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  
 다. 연구의 참여에 수락한 영유아 어머니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유 수유 질문지와 선행문헌을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모유수유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48문항으로 영유아 어머니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8문항, 수유 관련 특성에 관한 14문항, 모유 수유 인식에 관한 16문항과 모유 수유 실천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유 수유 인식 문항은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이다. 최고 80점에서 최저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모유 수유 실천 문항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최고 40점에서 최저 8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 수유 실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로 내적 일관성을 본 결과 Cronbach's Alpha 가 .74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3년 8월 16일 부터 10월 8일 까지 53일간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서울 시내에 소재한 7개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 영유아 상담실, 2개의 보건소 영유아실에 방문한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질문지를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뒤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카드에 부호화 한 다음 SPS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영유아 어머니와 아기의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나.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인식과 실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 영유아 어머니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관련 특성에 따른 모유 수유 인식과 실천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라.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어머니와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

가. 어머니와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영유아 어머니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 영유아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29.3세로 25세 이상 35세 미만이 86.0%(219명)로 대부분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이 91.4%(233명)로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74.9%(191명)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이 58.0%(148명), 100만원 미만이 42.0%(107명)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확대 가족이 28.6%(73명), 핵가족이 71.4%(172명)로 동거인을 포함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 아기의 연령은 평균 15.4개월로 12개월 미만이 42.4%(10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녀수는 96.1%(245명)가 2명 이하였다. 순위로는 첫째가 55.7%(142명), 둘째가 41.2%(105명)로 나타났다.

나. 수유 관련 특성

영유아 어머니의 수유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중 산전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는 99.2%(253명)로 대부분이 산전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기에게 좋은 수유 형태로 모유를 76.5%(195명), 모유와 우유를 22.4%(57명)로 담함으로써 98.9%(252명)에서 모유가 좋은 수유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를 이미 모유수유를 실시한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적절한 모유 수유 기간은 6-7개월이 31.8%(81명)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77.3%(197명)의 어머니가 적절한 모유 수유 기간으로 2개월에서 7개월 까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생후 첫 4-6개월 동안의 단독 모유 수유

〈표 1〉 영유아 어머니/ 아기의 일반적 특성

수 : 255명

특 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평균
어머니 :				
<u>연령</u>	25세 미만	16	6.2	29.3(세) (범위:21.0-44.0)
	25세이상-29세미만	125	49.2	
	30세이상-35세미만	94	36.8	
	35세이상	20	7.8	
<u>학력</u>	국졸	1	.4	
	중졸	21	8.2	
	고졸	119	46.7	
	대졸이상	114	44.7	
<u>직업</u>	가정주부	191	74.9	
	직장	64	25.1	
<u>종교</u>	기독교	93	36.5	
	가톨릭	32	12.5	
	불교	42	16.5	
	무	88	34.5	
<u>월수입</u>	100만원미만	107	42.0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01	39.5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8	11.0	
	200만원이상	19	7.5	
<u>가족 형태</u>	시어머니	60	23.5	
	친정어머니	11	4.3	
	시+친정어머니	2	.8	
	핵가족	157	61.6	
	기타	25	9.8	
아기 :				
<u>성별</u>	남	142	55.7	
	여	113	44.3	
<u>연령</u>	1개월이상-12개월미만	108	42.4	15.4(개월) (범위:1.0-36.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90	35.2	
	24개월이상-36개월	57	22.4	
<u>순위</u>	첫째	142	55.7	
	둘째	105	41.2	
	세째	8	3.1	
<u>수</u>	1(명)	127	49.8	1.5(명) (범위:1.0-3.0)
	2	118	46.3	
	3	10	3.9	

〈표 2〉 영유아 어머니의 수유 관련 특성

수 : 255명

특 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u>산전진찰</u>	규칙적	206	80.8	
	불규칙적	47	18.4	
	받지않음	2	.8	
아기에게 좋은 모유	195	76.5		
	<u>수유방법</u>			
	우유	3	1.1	
	모유+우유	57	22.4	
적절한 모유	1개월이하	4	1.6	
	<u>수유기간</u>			
	2-3개월	52	20.4	
	4-5개월	64	25.1	
	6-7개월	81	31.8	
	8-9개월	29	11.4	
	10-11개월	16	6.3	
	12개월 이상	9	3.4	
<u>모유수유 이유</u>	아기의 건강을 위해	233	91.4	
	정서적 유대를 위해	182	71.4	
	엄마의 건강을 위해	100	39.2	
	모유가 경제적이므로	73	28.6	
	모유가 편해	67	26.3	
남편과 가족의 권유로	37	14.5		
	<u>모유장점 정보</u>			
	유	246	96.5	
	무	9	3.5	
<u>정보제공자</u>	책	165	64.7	
	T.V. 라디오	116	45.5	
	친정부모	114	44.7	
	학교교육	106	41.6	
	시부모	93	36.5	
	친구	42	16.5	
	배우자	39	15.3	
	형제	36	14.1	
	간호사	34	13.3	
	의사	32	12.5	
	<u>분만장소</u>	종합병원	132	51.8
		개인병원	122	49.8
		기타	1	.4
<u>분만방법</u>	자연분만	184	72.2	
	수술	71	27.8	
<u>모자동실</u>	유	79	31.0	
	무	176	69.0	
분만후 유방관리	유방맞사지	171	67.1	
	<u>방법</u>			
	더운물 찜질	145	56.9	
	규칙적으로 짜냄	107	42.0	
	아기에게 빨림	99	38.8	
	그대로 둠	10	3.9	
	수분섭취 줄임	6	2.4	
	찬물 찜질	3	1.2	
	기타	2	.8	

특 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u>분만후 모유수유</u>	유	194	76.1	
	에대한 조언	61	23.9	
<u>조언자</u>	친정어머니	115	45.1	
	간호사	46	18.0	
	시어머니	40	15.7	
	스스로 알아서	33	12.9	
	친구, 이웃	22	8.6	
	의사	9	3.5	
	<u>모유수유기간</u>	1개월미만	77	31.0
		1개월-3개월미만	65	25.5
3개월-6개월미만		50	19.6	
6개월-9개월미만		28	11.0	
9개월-12개월미만		20	7.8	
12개월이상		13	5.1	
<u>임원중 수유방법</u>	모유	18	7.1	
	우유	180	70.6	
	모유+우유	55	21.6	
	잘모른다	2	.8	
<u>모유중단이유</u>	젖이 부족해서	105	41.2	
	직장때문에	35	13.7	
	이유시기가 되어서	24	9.4	
	엄마 건강때문에	24	9.4	
	물젖이어서	19	7.5	
	젖꼭지가 아파서	15	5.9	
	아기가 젖을 싫어해서	14	5.5	
	젖몸살 때문에	12	4.7	
	불편해서	11	4.3	
	우유가 아기 건강에 좋다고해서	5	2.0	
	유방이 늘어질까봐	3	1.2	
	가족의 반대로	1	.4	
	피임약 사용때문에	1	.4	

가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적 욕구를 만족 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Greaves & Hendrata, 1990 : Baines et al, 1989 : Jelliffe, 1978)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을 영유아 어머니가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모유 수유가 좋은 이유로는 '아기 건강을 위해' 91.4%(233명), '정서적 유대를 위해' 71.4%(182명), '엄마 건강을 위해' 39.2%(100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등(1983)의 연구에서 모유 수유를 계획하게된 이유로 '아기 건강을 위하여', '아기와 엄마의 정서적 유대를 위하여'라고 제시한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모유 수유에 대한 정보는 어머니의 96.5%(246명)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보 제공자로는 책 64.

7%(165명), 친정부모 44.7%(114명), T. V., 라디오 45.5%(116명) 학교 교육 41.6%(106명), 시부모 36.5%(93명)였다. 이는 유아책이나 잡지,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 이며 남편, 부모순인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김경희외 6인, 1985 : 정귀영 등, 1983). 그러나 간호사 13.3%(34명), 의사 12.5%(32명) 등의 의료인으로부터 모유 수유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의 예방, 증진을 담당해야 할 간호사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한 점은 간호 실무에서 재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분만장소는 조산소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병원 분만이었으며, 분만 방법은 자연 분만이 72.2%(184명), 수술분만이 27.8%(71명)이었다. 특히 이들 병

원중에 모자동실이 아닌 병원이 69.0%(17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후 유방 관리 방법으로는 더운물 찜질 56.9%(107명), 유방 마사지 67.1%(171명), 규칙적으로 짜냄 42.0%(107명) 및 아기에게 빨리는 경우가 38.8%(99명)로 나타났다.

분만후 모유 수유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경우는 76.1%(194명)이며 조언자로는 친정 어머니 45.1%(115명), 간호사 18.0%(46명), 의사 3.5%(9명)로 비교적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부터의 조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의 반수 이상에서 본인 스스로 수유 결정을 하였고 가족, 친구, 건강 전문인으로부터의 조언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에서와 같이 간호사를 포함한 건강 전문인으로부터의 조언이 부족함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모유 수유 기간은 평균 129.9일로 나타났으며, 병원에 있는 동안 70.6%(180명)가 우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나 분만후 초기 수유 방법이 모유 수유 지속에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병원의 환경적,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는 모유 수유 기간은 4-6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3개월 순과는 일치하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모유 수유 비율이 65.9% 정도를 보인 결과와는 상반된다(정귀영등, 1983).

모유 중단 이유로는 '젖이 부족해서' 41.2%(105명), '직장 때문에' 13.7%(35명)으로 이는 많은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외 6인, 1985 : 정귀영등, 1983 : 홍대식의 4인, 1982).

결국 이러한 수유 관련 특성의 결과를 볼때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분한 산전 교육은 물론 어머니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유 방법에 대한 지식을 주어야겠고 수유에 대한 실제적 문제, 이를 테면 모유량이 부족한 경우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실제 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 2.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표 3〉 모유수유 인식 및 실천 정도

	인식	실천
전체 평균(범위)	65.6(41.0-80.0)	30.4(18.0-40.0)
평균점	4.10	3.80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 65.6(점수 범위 : 41.0-80.0)이었고 이를 문항수로 나눈 결과 4.10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영유아 어머니가 이미 모유 수유를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므로,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고 인공 수유를 실시한 어머니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인식 정도가 실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유 수유 인식에 대한 문항별 점수를 본 결과에서는 '모유를 먹이면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느낀다'(4.80), '모유에는 아기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 성분이 들어 있다'(4.79), '모유는 아기에게 좋은 영양식이다.'(4.71)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 모유의 영양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4.19),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3.55)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도입으로써 모유 수유의 실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인식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표 4).

## 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실천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 실천 정도는 전체 평균 30.4(점수 범위 : 18.0-40.0)로 이를 문항수로 나눈 결과 3.80으로 비교적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영유아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천했던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유 수유를 실천하면서 모유량을 증가 시키고자 노력한다거나 모유 수유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 및 유방 관리들이 관하여 실제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 실천에 관한 문항별 점수에서는 '젖 먹이기 전에 유방과 손을 깨끗이 닦고 먹였다'(4.35), '젖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국물과 영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했다'(4.18), '젖은 아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먹였다.'(4.15)등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아기를 낳은 후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젖을 빨렸다'(3.57)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 초기 모유 수유에서 어머니의 모유 수유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이 모유 수유 성공에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려된다. 그러나 '아기가 먹고 남은 젖은 짜냈다'

(3.07)라는 문항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 모유 분  
비를 촉진하는 것과 관계된 지식은 비교적 낮음을 알수  
있다(표 5).

〈표 4〉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인식 문항별 점수

순위	문 항	평 점
1.	모유를 먹이면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느낀다.	4.80
2.	모유에는 아기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 성분이 들어 있다.	4.79
3.	모유는 아기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4.71
4.	엄마젖을 자주 빨리면 젖이 잘 나오고 젖몸살이 덜 생긴다.	4.48
5.	아기를 또 낳으면 모유수유를 하겠다.	4.47
6.	다른 어머니에게 모유수유를 권하겠다.	4.47
7.	모유는 우유보다 아기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적게 일으킨다.	4.43
8.	아기에게 젖을 먹인 엄마에게는 유방암이 덜 생긴다.	4.32
9.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아름답다.	4.26
10.	엄마젖을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	4.19
11.	모유를 먹이면 산후 회복이 빨라진다.	4.13
12.	모유를 먹이는 동안은 피임 효과가 있다.	3.99
13.	큰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 작은 아이에게도 모유를 먹여야 한다.	3.58
14.	엄마 젖을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3.55
15.	직장에 가면 젖을 계속 먹일 필요가 없으므로 젖을 물릴 필요가 없다.	3.35
16.	젖을 먹이면 유방의 모양이 변한다.	2.27
전 체 평 균		4.10

〈표 5〉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 실천 문항별 점수

순위	문 항	평 점
1.	젖 먹이기 전에 유방과 손을 깨끗이 닦고 먹였다.	4.35
2.	젖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국물과 영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했다.	4.18
3.	젖은 아기가 먹고 싶어할 때 먹였다.	4.15
4.	젖을 먹일 때는 한 쪽을 다 먹인 후에 다른 쪽 젖을 물렸다.	3.93
5.	피곤하면 젖이 부족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3.66
6.	아기를 낳은 후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젖을 자주 빨렸다.	3.57
7.	젖몸살이 나도 젖은 계속 가능한한 먹였다.	3.33
8.	아기가 먹고 남은 젖은 짜냈다.	3.07
전 체 평 균		3.80

4.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는  $r=.36$   
( $p=.000$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6).

〈표 6〉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인식과 실천과의 관계

모유 수유 인식	
모유수유 실천	.36**

\*\* $p<.001$

이는 긍정적 인식이 어떠한 신체적, 해부학적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  
었다는 사례를 제시한 Robbins(1992)의 연구 결과와 자  
신감, 소명감을 제공하는 동기가 모유 수유 실천을 증가  
시킬 수 있었다는 Baisch(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  
다.

5. 영유아 어머니/아기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차이 검  
증

영유아 어머니/아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 수



유 인식/실천 간의 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은 경우에 좀 더 긍정적인 인식 ( $F=3.13, p<.05$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영유아 어머니의 수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유 수유 인식/실천 간의 관계는(표 8)과 같다.

먼저, 영유아 어머니가 산전 진찰을 받은 경우 긍정적인 인식( $F=2.43, p=.09$ )을 보였다. 이는 산전 교실에 참

여한 군에서 모유 수유 기간을 평균 2-3주 더 지속시켰다는 결과와 일치하지만(Greene-Finestone, Heick & Luke, 1989) 산전 진찰을 받은 산모는 인공 영양을 많이 시킨 반면 그렇지 못한 산모는 모유 영양을 많이 시켰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Beaudry & Aucoin-Larade, 1989).

<표 7> 영유아 어머니/ 아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인식및 실천

특 성	구 분	실 수	인 식		실 천	
			평균(표준편차)	t or F값	평균(표준편차)	t or F값
<b>어머니:</b>						
<u>연령</u>	25세미만	16	4.10(.41)		3.88(.53)	
	25세이상-30미만	125	4.05(.47)	1.00	3.80(.59)	.21
	30세이상-35미만	94	4.13(.39)		3.79(.55)	
	35세이상	20	4.18(.44)		3.73(.62)	
<u>학력</u>	중졸	22	4.09(.38)		4.02(.55)	
	고졸	119	4.03(.43)	3.13*	3.78(.61)	1.90
	대졸	114	4.17(.44)		3.77(.52)	
<u>직업</u>	가정주부	191	4.11(.41)	.82	3.82(.56)	1.49
	직장에 나감	64	4.05(.51)		3.70(.59)	
<u>종교</u>	유	167	4.13(.43)	1.77	3.80(.59)	.42
	무	88	4.03(.44)		3.77(.54)	
<u>월수입</u>	100만원미만	107	4.07(.46)		3.75(.57)	
	100-150만원미만	101	4.13(.41)	.66	3.79(.59)	1.00
	150-200만원미만	28	4.16(.32)		3.96(.48)	
	200만원이상	19	4.03(.57)		3.84(.57)	
<u>가족형태</u>	핵가족	182	4.10(.43)	-.32	3.79(.51)	-.05
	확대가족	73	4.08(.43)		3.80(.59)	
<u>산후조리 도와준 사람</u>	본인	8	4.17(.46)		3.92(.69)	
	어머니(친구)	226	4.10(.43)	.18	3.80(.55)	.30
	타인	21	4.06(.46)		3.74(.76)	
<b>아기:</b>						
<u>성별</u>	남	142	4.07(.43)	.81	3.80(.59)	.04
	여	113	4.12(.45)		3.80(.55)	
<u>순위</u>	첫째	142	4.10(.47)	.05	3.79(.57)	-.02
	둘째이상	113	4.10(.39)		3.80(.58)	

\* $p<.05$

분만 장소가 종합 병원일 때 영유아 어머니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F=2.79, p=.06$ ). 또한 모자 동실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에 모유 수유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2.74, p<.05$ ) 실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병원 분만인 경우가 가정 분만인 경우보다, 모자 동실을 실시 하지 않는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가 모자 동실을 실시한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보다 모유수유의 빈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홍대식 외 4인, 1982).

수유 기간이 5개월 이상 일 때 긍정적인 인식( $t=-2.30, p<.05$ )과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74, p<.05$ ). 이는 모유 수유에 대한 확고한 긍정적인 인식이 모유 수유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된다.

병원에 있는 동안 수유 방법과 모유수유 실천간에 유의한 차이 ( $F=3.69, P=.02$ )를 나타내 분만후 초기 병원에서의 수유 방법이 모유 수유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 있는 동안 70.6%가 우유를 먹었으며 병원에서의 수유 방법과 그 이후 수유 방법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정귀영등, 1983)와 병원에서 인공 수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공 영양을 택하게 된다(김경희외 6인, 1985)는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분만후 초기의 이른 모유 수유 실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본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의료인의 무관심한 태도나 인공 수유에 대한 잘못된 권유, 모자 동실 여건 등의 환경적, 구조적인 요인이 모유 수유에 대한 의도된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사려된다.

〈표 8〉 영유아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인식 및 실천

특 성	구 분	실 수	인 식		실 천	
			평균(표준편차)	t or F값	평균(표준편차)	t or F값
<u>산전진찰</u>	규칙적	206	4.08(.44)	2.43	3.83(.57)	1.14
	불규칙적	47	4.20(.39)			
	반지않음	2	3.66(.13)			
<u>모유장점정보</u>	유	246	4.12(.44)	.19	3.79(.57)	.84
	무	9	4.06(.44)		3.99(.69)	
<u>분만장소</u>	종합병원	132	4.15(.43)	2.79	3.81(.58)	.11
	개인병원	122	4.04(.43)		3.78(.57)	
	기타	1	4.56		3.88	
<u>분만방법</u>	자연분만	184	4.08(.52)	-.86	3.82(.56)	.81
	수술	71	4.13(.47)		3.75(.61)	
<u>모자동실</u>	유	79	4.05(.43)	-2.74*	3.78(.54)	-.42
	무	176	4.21(.42)		3.81(.58)	
<u>수유기간</u>	5개월미만	177	4.05(.43)	-2.74*	3.74(.57)	-2.30*
	5개월이상	78	4.21(.42)		3.92(.57)	
<u>병원입원</u>	모유	18	4.03(.30)		4.07(.40)	
<u>수유방법</u>	우유	180	4.08(.43)	.69	3.75(.57)	3.69*
	모유+우유	55	4.15(.48)		3.89(.55)	

\* $p<.05$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모유수유 간호 전략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모유수유 질

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48문항으로 영유아 어머니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수유 관련 특성 14문항, 모유수유 인식에 관한 문항 16문항과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74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3년 8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53일간 서울 시내 소재 7개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 영유아 상담실, 2개 보건소의 영유아실을 방문한 영

유아 어머니 중 아기의 연령이 1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이면서 모유 수유 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 255명을 255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어머니의 98.9%에서 아기에겐 좋은 수유 형태로 모유 수유 임을 제시하였으며, 적절한 모유 수유 기간으로는 77.3%에서 2-7개월이라고 제시하였다. 모유 수유가 좋은 이유로는 '아기 건강을 위해'(91.4%), '정서적 유대를 위해'(71.4%) 및 '엄마 건강을 위해'(39.2%)라고 제시하였다. 모유 수유에 대한 정보는 주로 책(64.7%), TV., 라디오(45.5%), 친정 부모(44.7%)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간호사(13.3%)나 의사(12.5%)등의 의료인으로부터의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어머니가 병원 분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후 유방 관리에 대한 조언자는 대부분이 친정 어머니(45.1%)인 반면에 간호사(18.0%)나 의사(3.5%)등의 의료인으로부터의 조언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모유 중단 이유로는 '젖이 부족해서'(41.2%), '직장 때문에'(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평점 4.10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실천 정도는 평균 평점 3.80으로 비교적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는 ( $r=.36, p=.000$ )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모유 수유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유아 어머니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차이 검증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F=3.13, p<.05$ ), 산전 진찰을 받은 경우( $t=2.43, p=.09$ ), 분만 장소가 종합 병원일 때( $F=2.79, p=.06$ ), 모자 동실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t=-2.74, p<.05$ ), 수유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 $t=-2.30, p<.05$ )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유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 $t=2.74, p<.05$ ) 모유 수유 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 결과 모유 수유를 실행함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이 아주 미진하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영유아 어머니로 하여금 모유 수유를 지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유 수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이미 모유 수유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인식 정도와 실천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 실시 경험과 관계없이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 이근, 김충희, 이근수, 신상만, 한동관, 문수지 (1985). 한국 여유아의 수유 실태조사. 소아과, 28(10), 8-12.
- 박인화(1982). 모유 대체 식품 판매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 및 국제 동향. 한국 인구 보건연구원, 67-91.
- 이혜경(1983). 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및 태도. 경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정귀영, 이근 (1983). 모유 수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6), 1-6.
- 최순옥(1987). 모유 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친 영향. 경북 대학교 보건 대학원(석사 학위 논문).
- 홍대식, 정우식, 김홍규, 남병도, 김규택(1982). 내원 환자 및 육아 상담아의 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25(4), 27-35.
- Baines, C. J., Christin, A., Simard, A., Wall, C., Dean, D., Duncan, L., Edward, P., Fryer, M. L., Gregorie, L. B., May, c., Snider, J., Watson, L., Turnbull, C. & Miller, A. B. (1989). The national breast screening study : Pre-recruitment sources of awareness in participants. Canadian J. of Public Health, 80(3), 221-225.
- Baisch, M. J., Fox, R)A., Whitten, E. & Pajewski, N. (1989). Comparison of breastfeeding attitudes & practices Low-income adolescents and adult women,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8(1), 61-70.
- Beaudry, M. & Aucoin-Larade, I. (1889). Who

breastfeeds in new Brunswick, When & why?,  
Canadian J. of Public health, 80, 166-172.

Brown, F., Lieberman, J., Winston, J. & Plesheffe,  
N.(1960). Studies in choice of infant feeding.  
Psychosomatic medicine, 22(6), 421-429.

Franz, K. B. & Kalman, B. A.(1979). Breastfeeding  
work for cesareans, too. RN, 39-47.

Greaves, J. P. & Hendrata, L.(1990). Breastfeeding  
& Growth monitoring, Int. J. Of Gynecolo.  
Obste., 31, 121-123.

Greene-Finestone, L., Feldman, W. & Luke, B.  
(1989). Infant feeding practices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in Ottawa-  
Carleton, Canadian J. of Public Health, 80,  
173-176.

Macaulay, A. C., Hanusaik, N. & Beauvais, J. E.  
(1989). Breast feeding in the Mohawk com-  
munity of Kahnawake : Revisited & Redefined,  
Canadian J. of Public Health, 80, 177-181.

Robbins, M. J.(1992). Breast-feeding in the face of  
adversity.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7(5), 243-245.

Staring, J., Fergusson, D. M., Horwood, L. J. &  
Taylo, B.(1979). Breastfeeding success & fail-  
ure, Aust. Pediatric J., 15, 271-274.

- Abstract -

### Study o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of mothers of under toddler

*Song, Ji Ho*<sup>1)</sup> · *Kim, Soon Ae* · <sup>2)</sup> · *Moon, Young Soo*<sup>3)</sup>  
*Park, Young Joo*<sup>4)</sup> · *Paik, Seng Nam*<sup>5)</sup> · *Pyun, Soo Ja*<sup>6)</sup>  
*Lee, Nam Hee*<sup>7)</sup> · *Cho, Kyul Ja*<sup>8)</sup> · *Cho, Hee Sook*<sup>9)</sup>  
*Choi, Mi Hyae*<sup>10)</sup> · *Choi, Yang Ja*<sup>11)</sup>

This study presents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Seoul are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researchers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cog-  
nition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The subjects  
were mothers of 255 childs 1-36 months of age who  
have experienced breast feeding over one month.

Recognition of breastfeeding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aby's health", "emotional rela-  
tionship between mother and infant", "mother's  
health", "for economic reasons".

The majority of mothers got information of  
breastfeeding through booklets(64.7%), from her  
mothers(44.7%), through T.V or Radio(45.5%),  
School education(41.6%), from mother in law(36.  
5%), and did not perceive professional advice from

---

1) Ph.D., Professor, National Medical Center Junior Col-  
lege of Nursing

2) M.S., Professor, Seoul Junior College of Nursing

3) M.S.,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4) Ph.D.,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5) M.S., Professor, KyoungHee Junior College of Nursing

6) M.S., Professor, National Medical Center Junior Col-  
lege of Nursing

7) M.S., Professor, Seoul Junior College of Nursing

8) Ph.D.,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  
cine, KyoungHee University

9) M.S., Professor, KyoungHee Junior College of Nursing

10) M.S.,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11) M.S., Professor, Red Cross Junior College of Nursing

nurses or doctors as important. "Lack of milk" was the predominant reason for terminating breastfeeding.

Efforts for practice of breastfeeding was comparatively high because of experienced mothers of breastfeeding.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liquid diet and nutritional food for increasing secretion of milk", "fed on by infant-demanded schedule".

Duration of breastfeeding was under one month(31.0%), 1-3 months(25.5%), 3-6 months(19.6%),

6-9 months(11.0%).

Degree of recognition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location of delivery(big hospital), Rooming in, over 5 months of breastfeed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effective and supportive breastfeeding program developed by nurses have to provide to mothers of infants to take an important role in breastfeeding.